

마가복음 9장 21-29절 말씀

<대화② 예수님-아이의 아버지>

- 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
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
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
- 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
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
- 23 예수께서 이르시되
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?
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
-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
내가 믿나이다
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
- 25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
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
말 못하고 못듣는 귀신아
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
- 26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
그 아이가 죽은것 같이 되어
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
- 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
- 28 집에 들어가시매
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
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?
- 29 이르시되
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